

'입장' 과 '관점' 이 충돌하는 책 대 책

화랑세기 진위논쟁, '제3의 길' 논쟁 등 책으로 펼쳐



기든스
진중권
빌 게이츠
(왼쪽 위부터)



《제3의 길》 출간을 계기로 벌어진 '제3의 길' 노선논쟁은 서구의 일급 지식인들이 참여해 논쟁의 밀도를 높여감으로써 21세기의 대안이념을 모색했다. 기든스는 시장만능주의의 폐해와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넘어 '새로운 사민주의'를 제안함으로써 논쟁의 물꼬를 텄다.

아떨어지면서 사회과학서로는 보기 드문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복지체제가 미흡한 국내 상황에서 기든스 노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자는 반성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노르베르토 보비오의 《제3의 길은 가능한가》(새물결)는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보비오는 기든스에 맞서 현실정치에서 좌우파의 구분이 여전히 유효함을 역설한다. 전세계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평등주의를 긍정하는 좌파의 이념과 제도로서 좌파정당은 '죽은 개'가 아니라는 항변이다. 94년 이탈리아에서 출간돼 그해만 20여만부가 팔렸지만 좌파이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

'제3의 길' 은 틀렸다

한편, 당대에서 번역된 에릭 홉스봄 외의 《제3의 길은 없다》는 원제의 'wrong'이 말해주듯 기든스 노선이 '틀렸다'고 단정한다. '제3의 길' 노선을 실험하고 있는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가 알맹이는 빼먹고 겉포장에만 여념이 없으며 결국은 우파의 의제로 돌아서 재분배와 사회정의를 포기했다고 진단한다.

'기든스 논쟁'이 세간의 화려한 주목을 받으며 진행될 때, 한편에선 일본의 지식인들이 '과거의 기억'을 둘러싼 지상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가토 노리히로가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창작과비평사)에서 아시아 태평양전쟁에서 죽은 자국의 사망자를 아시아 사망자보다 먼저 애도해야 한다는 데 대해 타카하시 테츠야를 비롯한 소장파 지식인들은 《국가주의를 넘어서》(삼인)에서 가토의 주장은 자국중심주의, 가족 국가관이며 침략행위를 은폐한다고 비판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은 빛과 그림자를 거느리는 범, 빌 게이츠의 《빌게이츠@생각의 속도》(청림출판)가 디지털신경망을 통해 생각하는 비즈니스만이 미래에 살아남는다는 선언을 담았다면 웬디 골드만 롬의 《마이크로소프트 파일》(더난출판사)은 빌 게이츠의 일그러진 모습을 폭로한다. 하지만 국내 독서시장에서는 빌 게이츠의 성공신화를 결코 깨지 못했다.

-박천홍 기자

최근 국내 고대사학계에 《화랑세기》의 필사본을 둘러싼 '진위논쟁'이 뜨겁다. 서울대 노태돈 교수와 서강대 이종욱 교수의 공방이 《화랑세기》(소나무) 출간을 계기로 학계 전체로 번지고 있다. 한편 유교문화의 폐해를 공격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에 대해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시아출판)로 맞서서 눈길을 끈다.

보수주의 이념에 대한 이의제기

학문풍토상 국내 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초기에 진압되거나 알맞은 감정의 앙금만 남긴 채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다. 책 대 책으로 공방의 수준을 높여간 경우는 드물었다. 본격 학문논쟁은 아니었지만 조갑제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조선일보사)와 진중권의 《내 무덤에 침을 뱉으마》(개마고원)는 독자들에게 지적 카타르시스를 안겨줬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 책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박정희를 '근대화의 영웅'으로 찬미한 조갑제의 작업에 대해 진중권이 풍자와 독설로 공격했다. 진중권은 조갑제의 텍스트를 철저히 분석·해체함으로써 극우 파시스트의 전형을 읽어냈다. 하지만 일방적 공격과 일방적 무시의 구도로 이어져 에피소드로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앤소니 기든스의 《제3의 길》(생각의나무) 출간을 계기로 벌어진 '제3의 길' 노선논쟁은 격이 달랐다. 서구의 일급 지식인들이 참여해 논쟁의 밀도를 높여감으로써 21세기의 대안이념을 모색했다. '성찰적 근대화론'의 선구자인 기든스는 시장만능주의의 폐해와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넘어 '새로운 사민주의'를 제안함으로써 논쟁의 물꼬를 텄다.

이 책은 수평적 정권교체에 따른 중도우파 정부의 출범과 절묘하게 맞